

# 한·일 양 언어의 색채표현에 관한 대조연구

— 『雪國』를 중심으로 —

권영성\*

## 目次

1. 머리말
2. 색채·색채어·색채표현
3. 『雪國』에 사용된 색채어의 분포상황
4. 『雪國』에 나타난 색채표현
5. 화용론적 전체
6. 맺음말

## 1. 머리말

國境の長いトンネルを抜けると雪國であった。夜の底が白くなった。

상기 문장은 『雪國』의 첫머리에 나타나는 표현이다. 인간은 연상이라는 심리활동에 의해 「雪國」라는 표현으로부터 자연스럽게 「白」라는 색채(어)에 도달할 수가 있다. 앞 문장의 「雪國」라는 전체 없이는 「夜の底」가 희게(白く) 보일 리 없기 때문이다.

「前の文を前提に後續の文の意味が適正に解釋」(兒玉 1998)되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자연적인 인지과정이 나타나 있는 작품전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상은 리치(Leech 1974)가 말하는 연상적 의미(Associative Meaning)와 관련지워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가정」이라는 단어에는 일반적으로 「따뜻함·편한함」이라는 이미지가 따라 다닌다. 즉 모든 단어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부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단어의 내포적 의미(Connotative Meaning)라고도 할 수 있다.

리치는 단어의 내포적 의미는 문화·시대·개인의 경험에 의해 상당히 변화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색채(어)는 여러 가지 연상을 낳고,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大山 1984).

이러한 사항들로부터 추측될 수 있는 점은 시와 소설 등 모든 장르에서 사용되고 있는 색채표현은 어떤 상징적 의미, 즉 내포적 의미를 지니고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 작가와 작품에 따라 색채표현은 인간의 자연적인 연상작용(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한)을 넘어서

\* 계명대학교 교양과정부 초빙전임강사 일본어학

비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고찰은 특정한 작가 또는 작품에 대한 어휘와 표현레벨에서의 개성과 특징 등을 분석하는 문체연구가 아님을 밝혀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점들을 염두하면서 『雪國』를 텍스트로 하여, 여기에 나타난 색채 표현을 그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의미상징에 주목하여 한국어 번역판과의 대조를 통하여 분석한다. 고찰방법은 한국어 번역판과의 대조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단, 본 연구에서는 『雪國』에서 쓰여진 색채어중 사용빈도가 높은 「赤」에 한한다 분석에 사용될 『雪國』의 원전은 『現代日本文學館24 川端康成』(文芸春秋, 1966)이다. 한국어 번역판은 『세계문학 27 川端康成』(1982)을 사용하였다.

## 2. 색채 · 색채어 · 색채표현

본 연구를 진행해 가기에 앞서 색채 · 색채어 · 색채표현이라는 용어에 관해 간략히 언급해 보기로 한다.

吉村(2003:30)는 「人間は日常生活を營む上でさまざまな色彩を利用しており、現代は『色の時代』とも呼ばれる。(중략) 現代では色彩語の語彙が増加しているだけではなく、その使用頻度も一層増加する傾向が見られる。色彩語が用いられる時には、意味の上では換喩(metonymy)や隱喩(metaphor)が影響していることが多いが、色彩表現の使用法は多種多様で、數々の役割を色彩表現が担っている」(하선/중략은 필자)라고 기술하고 있다.

상기의 기술처럼 색채어 연구에 있어서 색채 · 색채어는 서로 구분되어져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색채의 물리적 현상, 또는 시각성에 관한 현상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색채를 나타내는 한·일 양국의 언어, 즉 색채어에 의한 언어표현적 측면(→색채표현)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색채어에 의한 색채표현에 관해 고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색채의 이미지인지 아니면 색채어의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그 구분이 간단하지 않다. 즉 색채(의 이미지)와 색채어(의 의미)의 경계를 구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 윌러(Wyler 1992:154)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From a linguistic perspective, associations evoked by a colour and symbolic values attributed to a colour are only of significance in so far as they find expression in collocations with figurative meaning in which the colour term occurs. This means that symbols based on colours as they are listed in the Dictionary of Symbols and Imagery do not necessarily find expression on the level of language.

(언어적으로 색채에서 기인하는 연상과 색채에서 환기되는 상징가치가 색채어에서 생겨난 비유적 의미를 가지는 언어적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Dictionary of Symbols and Imagery(상징과 구체적 표현의 사전)」에 실려있는 색채에 기초한 상징이 반드시 언어레벨에서는 찾을 수 없다 것을 의미한다.

즉 색채의 상징성은 반드시 색채어에 의한 언어표현으로 나타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색채의 이미지와 색채어의 의미는 반드시 서로 겹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색채가 색채어와 결합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색채(의 이미지)=색채어(의 의미)」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색채어는 색채를 표현하기 위한 말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색채는 물리량을 심리량으로 환산한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sup>1)</sup>(武井 1982).

물론 색채어의 언어적 측면, 예를 들면 색채어의 표현성을 취급한다고 해도 색채의 이미지와 색채어의 의미를 별개의 것으로 다루기는 곤란할 것이다. 색채의 이미지는 색채어의 의미에도 투영·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색채의 이미지가 색채어의 의미에 투영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엄밀히 구분하지는 않기로 한다.

한편, 지금까지 문학작품에 나타난 색채어·색채표현 등이 언어학의 연구대상이 되어오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의 언어는 작가의 주관적인 감정안에서 성립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에는 곤란하지 않겠는가하는 우려가 추측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모두에서도 밝혔듯이 특정 작가의 작품을 분석하는 문학적 연구 또는 문체 연구는 아니다. 색채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행해져 오지 않은 만큼 그 분석방법에는 금후로도 많은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 3. 『雪國』에 사용된 색채어의 분포상황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雪國』에서 기본색채어의 사용율은 색채어 전체의 88.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赤」는 34%(36건)이라는 높은 사용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白」는 17.3%(18건)으로 사용율에서 보면 『雪國』라는 소설에서는 제3위의 색채어이다. 이러한 수치는 『雪國』라는 소설의 이미지와는 쉽게 연결되어지지 않는다.

『雪國』에 나타난 색채어의 분포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색채어의 분포상황

1) 색채어는 색채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이다. 이 색채라는 것은 색감각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색지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색채의 표시는 물리량을 심리량으로 변환한 즉 심리적인 성질이 된다. 따라서 색채어에 의해 나타나는 것은 색채의 개념이다. 애매하고 불확실한 언어에 의해 나타나는 것은 다름아닌 색채어이다.

색채어	건 수	%
赤	36	34.6
黒	25	24.0
白	18	17.3
青	13	12.5
銀	5	4.8
緑	3	2.9
灰	2	1.9
黄	1	1.0
青黄	1	1.0
합계	104	100

\*「雪國」에 사용된 색채어중 복합어는 채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赤とんぼ・黄蝶)

한편, 각각의 색채어가 수식하는 대상별로 분류하면 총 48건의 색채어가 작중의 인물을 수식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점은 색채어 「赤」가 작중인물중 「駒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赤」는 이 소설에서 36건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 20건이 「駒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작가의 의도성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 4. 『雪國』에 나타난 색채표현

일반적으로 색채어의 주요한 역할은 사물의 색채를 나타내는 시각작용으로서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1차적 기능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사물을 바라보는 인지적 측면에서 색채표현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도 해석할 수 있다.

- (1) 眞っ赤に熟した柿の實に夕日が(226)\*괄호안의 숫자는 인용한 쪽수  
(1') 빨갭게 익은 감에 저녁 햇살이

이러한 경우(사물의 색채를 나타내는 경우)의 색채표현을 색채어의 1차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의 색채표현이 표면적으로는 1차적 기능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인지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일본어에서는 흔히 잘 익은 감(물론 잘 익은 사과라도 좋다)은 <Red>로 인식되어 <赤>로 기호화된다. 그러나 잘 익은 감(또는 사과)을 <Red>로 인식하지 않는 문화권의 언어에서는 과연 예문(1)과 같은 표현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예를 들면 일본인은 일반적으로 사과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이라고 하면 빨갭게 익은 사과를 떠올린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사과의 프로토타입은 녹색 사과로 알려져 있다(鈴木 1990). 따라서 「眞っ赤に熟したリング」라는 표현이 프랑스인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러한 문화에 따른 인식의 차이, 즉 문화에 의한 프로토타입의 차이를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예문(1)과 같은 색채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에 따른 인식의 차이, 즉 문화에 의한 프로토타입의 차이를 잘 나타내주는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자.

한·일 양 언어에서는 태양색의 프로트타이프는 언어적·문화적으로 「Red」이다. 그러나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에서는 태양색의 프로트타이프는 「Yellow」이다.

특히 사막의 작열하는 태양 아래서 생활하는 아라비아인들에게 「붉은」태양은 저주스러운 존재일 것이다(鈴木 1990).

이러한 예로 봐서 색채인식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 달라지고 색채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럼 계속해서 영어에서는 잘 익은 감의 색채를 어떻게 인식하여 묘사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The tree well in any well-drained soil and makes a fine medium-size shade tree... A heavy crop of orange fruit holds on until winter, decorating the bare branches.

Barbara Ferguson : All About Growing Fruits, Berries & Nuts, Chevron Company, San Francisco, 1987.

(감나무는 어디서나 토양을 잘 흡수하고 멋진 그늘을 만든다. 무거운 오렌지색 과일은 잎이 없는 가지를 장식하여 겨울까지 유지한다.)

상기 예문에서는 감의 색채가 오렌지색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에서 잘 익은 감을 오렌지색이라고 인식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사실로 언어란 인간이 외부세계를 인식하는 수단(鈴木 1990)임과 동시에 그 인식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일 양 언어에서는 잘 익은 감은 언어문화적으로 <Red>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묘사기능·전달기능으로서 인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물에 대한 인식은 언어(또는 문화·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달라지며 색채에 대한 존재가치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예문(1)에서 보여지는 색채어의 기능은 감이라는 사물의 색채를 묘사하는 1차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와 대조하여 보았을 때 잘 익은 감에 대한 한·일 양국간의 묘사과정의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색채어의 1차적 기능이 나타난 언어표현외에 색채어의 2차적 기능이 나타난 언어표현을 통해서 「赤」의 다양한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한다. 즉 「赤」가 표면적으로는 색채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심층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관찰해 가기로 한다<sup>2)</sup>.

레이코프(lakoff 1987)도 지적하고 있듯이 하나의 어휘항목이 일련의 관련된 의의를 가진 경우를 다의성이라고 한다. 그는 다의성의 문제를 인간의 인지과정에 주목하여 프로트타이프 효과에서 규명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다양성은 일련의 의미 프레임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의미프레임이란 문화에 기초한 습관적지식의 정적태두리라고 한다. 예를 들면 해당 문화내에 있어서 그 단어와 구문을 이용하는 언어사용자가 그들 단어와 구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식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생각은 말과 의미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지식을 분리해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색채어는 단순히 사물의 색채묘사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다채롭게 확장되어 간다.

즉 색채어에서도 의미의 다양성(polysemy)을 볼 수 있다. 다의어에 관해서 國廣(1982:97)의 정의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多義語(polysemic word)とは、同一の音形に、意味的に何らかの關連を持つふたつ以上の意味が結び付いている語を言う。」

계속해서 이하의 예문에서는 「赤」의 다양한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한다.

- (2) きっと眞っ赤になるにきまっている。なにげない風に装ってくれるようにと、島村が考える暇もなく、駒子はもう咽まで染めてしまった。(208)
- (2') 틀림없이 얼굴이 새빨개지리라 아무렇지도 않은 체해 주었으면 하고 시마무라가 생각할 틈도 없이 코마코는 벌써 목덜미까지 물들어 버렸다.

예문 (2)는 색채어를 사용한 언어표현으로 「부끄러운」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부끄러워지면 인간의 얼굴색은 붉게 변한다는 이미지 스키마(image schema)에 의해 상기 예문의 「眞っ赤になるにきまっている」에서 「眞っ赤」는 비유적으로 「부끄러움/창피」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언어표현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메타포(metaphor)에 의한 의미의 개념화(언어의 인식과 개념영역의 확장)는 인간의 경험이 집약되어진 결과, 즉 이미지 스키마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도록 하자.

- (3) 眞っ赤になって島村を睨みつけながら(251)
- (3') 얼굴이 새빨개진 코마코는 시마무라를 노려보면서

상기 예문(3)은 흥분하거나 화가 나거나 할 때는 인간의 얼굴색이 붉게 변한다는 이미지 스키마에 의해 가능하게 된 표현으로 「분노」라는 의미용법을 가진다.

예문(2)(3)은 메타포에 의한 비유적인 관용표현의 일종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인지언어학에서는 비유란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방책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 의해 의미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색채심리학에서도 「red」는 일반적으로 「흥분/분노」를 연상시키는 색채·색채어로 알려져 있다.

한편 아래의 예문(4)처럼 「赤」가 심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추워서 붉게 변한 얼굴의 상태를 색채어를 사용해 묘사한 언어표현이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도 「赤」라는 표현이 가능하게 된 것은 추워지면 얼굴색이 붉어진다는 이미지 스키마에 의해 생겨난 언어표현이라는 것 만은 부정할 수 없다.

- (4) 「頬っぺたが眞っ赤じゃないか、寒くて。」(207)
- (4') 「뺨이 새빨갱지 않나, 추워서..」

이 경우에도 「赤」라는 색채어를 사용한 언어표현이 가능한 것은 추우면 얼굴색이 붉어진다는 이미지 스키마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문 (2)-(4)에서 처럼 말의 형식과 의미는 외부세계의 지식·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 스키마에 의해 동기지워져 있다(山梨 1995). 또한 이러한 이미지 스키마는 언어표현에 있어서 확장 프로세스에 의한 단어의 다의성을 고찰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되어있다. 왜냐하면 의미의 일부는 경험적 기반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되는 여러 가지 이미지 스키마에 의해 인지영역이 확장되어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문(2)(3)에서 처럼 한 언어에서의 메타포(metaphor)에 의한 심층적 의미가 다른 언어에

서는 어떻게 묘사되어지는가라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國廣(1981)는 번역에 관한 제 문제를 언어학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있다 즉 번역시 자연스러운 표현을 지향한다고 하면 2언어간의 표현상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L1을 L2로 직역하는 경우에 의미 불명인 문장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문 (2)(3)에 대한 한국어역은 (2')(3')이다. 이 때 일본어에서는 언어표현으로서 인정되어지는 메타파적인 색채표현이 그다지 의역을 거치지 않고 한국어로 직역 가능하다는 것은 양 언어에 있어서 「red」에 의한 색채표현의 사회적 맥락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닐까?

일본어에는 「眞っ赤な嘘」는 존재하지만 「眞っ白な嘘」와 「眞っ黒な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영어에는 「white lie」와 「black lie」는 있지만 「red lie」는 없다.

安井(1978)은 이점에 관해서 「言内の言語形式には、それぞれのお國ぶり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その背後に文化が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로 봐서 일본어의 메타파적인 색채표현이 한국어로 직역되어진다는 점은 또는 통용될 수 있다는 점은 양 언어의 언내(言内)의 언어형식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어의 경우는 예문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피」 「분노」를 나타내는 메타파적인 언어표현이 색채어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와는 달리 한국어의 경우는 예문 (2')(3')과 같이 색채어만으로는 「창피」 「분노」를 나타내는 메타파적인 언어표현은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어의 경우 「붉어지다/빨갱게 되다(赤くなる)」라는 색채표현이 「창피」 「분노」를 나타내는 메타파적인 색채표현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색채어외에 어휘의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붉어지다/빨갱게 되다」라는 표현외에 「얼굴」이라는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명사에 의한 수식이 필요하다 물론 일본어에서도 아래의 예문(5)와 같은 경우는 볼 수 있다.

(5) 「顔を赤くしたり、ばたばた追っかけて來たりすれば、なお困るんじゃないか。」(209)

(5') 「얼굴을 붉힌다든지, 쫓르르 뒤쫓아 온다든지 하면 더욱더 곤란하잖아?」

그러나, 일본어의 경우는 아래의 예문(6)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어와는 다르다.

(6) 「かまやしない。」とはっきり言いながら駒子はまた赤くなると、その場に立ち止まってしまって、道端の柵につかまった。(209)

(6') 「상관없어요」하고 똑똑히 말하면서 코마코는 또다시 얼굴이 붉어지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길가의 감나무를 붙잡았다.

상기 예문(6)은 「顔」라는 신체부위명칭이 없어도 「창피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메타파적 색채표현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한국어(6')은 「얼굴」이라는 신체부위명칭을 부가함으로써 비유적 의미가 성립된다.

즉 L1 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는 L1 에 없는 어구를 L2 에 부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문 (2)(3)과 같은 메타파적인 색채표현이 한국어에서도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부 술부」라는 관계가 필요한 것이다. 단지 일본어에서는 주부, 즉 「顔」가 생략되어도 의미적으로 자연스럽다.

아래 필자의 작례를 보도록 하자.

- a. 彼は赤くなって太郎をにらんでいる  
 a'. 그는 붉어져서 太郎를 노려보고 있다(\*)  
 b. 花子は今日も遅刻して赤くなった  
 b'. 花子は 오늘도 지각해서 붉어졌다(\*)

상기의 일본어 예문 a, b 는 비유표현으로서 가능하지만 한국어로의 직역은 의미상으로 부적절하다.

한편, 『雪國』에서 「분노· 흥분」을 나타내는 비유표현은 예문(3)뿐이다. 그러나 예문(3)에 있어서의 비유표현과 한국어 번역판의 예문(3')가 구문상 다르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파악되었다.

색채어를 이용한 유사한 발상에 의한 비유표현이라 할지라도 양 언어의 구문상의 상이점이 보이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신문 및 소설<sup>3)</sup>을 대상으로 하여 상기 a', b'와 같은 표현의 사용유무를 확인했다. 그 결과 a', b'와 같은 표현은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a', b'와 같은 표현이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한편 『雪國』에서 색채어 「赤」는 작중인물인 「駒子」의 정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노리고 사용되고 있다. 특히 다음 예문에서 「赤」는 에로티시즘을 상징한다.

- (7) 女はむっとしてうなだれると、襟をすかしているから、背なかの赤くなっているのまで見え、なまなましく濡れた裸を剥き出したようであった。(203)

『雪國』에서 「赤」는 관능적이고 생명감 넘치는, 현실세계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駒子」에게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20회). 즉 작중인물의 관능적이고 정열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赤」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赤」가 가지는 내포적 의미 또는 연상적 의미, 즉 「정열적· 활력적· 자극적· 도발적· 따뜻함」이라는 이미지에 의해 가능하게 된 언어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에게 또는 그러한 성격의 인물을 묘사해 가기 위해 「赤」라는 색채어를 집중시키더라도 사회· 문화적인 의미범주에서 인정되어진다.

또한 예문(7)은 인지론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레이코프· 터너(Lakoff· Turner 1989:100)에는 「이미지적 은유」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다.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概略、メタファーはその全てが概念構造間の寫像によって成り立つわけではない。概念間の寫像によるメタファーは無意識に、また自動的にわれわれの世界の理解を組織しているが、それとは別に存在するメタファーが、イメージ的隱喩であり、これは概念というよりはイメージの寫像である。

이러한 정의로 봐서 예문(7)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작중인물 「駒子」에 대해서 관능적이고 정열적인 이미지 만들기를 위하여 「赤」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赤」는 에로티시즘을 상상(寫像)하는 「이미지적 은유」로서 인정되어진다는 것이다.

3) 조선일보(2003.10.1-2003.11.30), 『빈처』 『베로니카의 노래』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신문의 논리적인 문장을 고려하면 신문기사에서 사용된 표현으로 a', b'와 같은 용례가 없다는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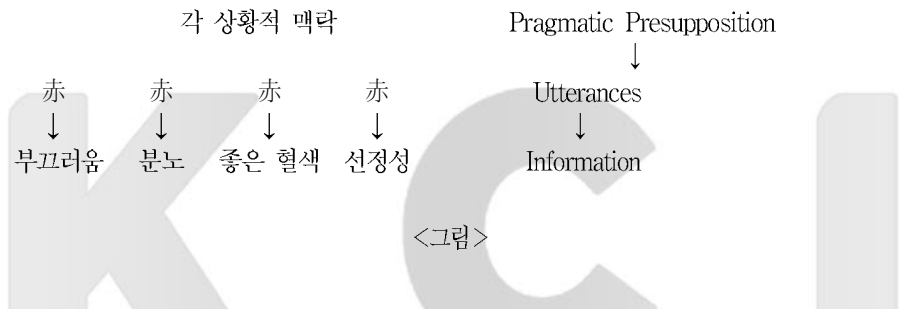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의미분석의 경우, 「赤」라는 색채어를 작품의 전후관계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 즉 작중에서의 색채어의 표출방법은 작품의 전개과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5. 화용론적 전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赤(くなる)」라는 색채어에 의한 메타과적인 언어표현은 한·일 양 언어 모두 그 의미해석에 있어서 소위 화용론적 전제(Pragmatic Presuppositio)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의미론에서는 「赤(くなる)」는 언어 그 자체의 지식을 나타내지만 화용론에서는 「赤(くなる)」는 상황적 맥락에 의한 지식이 필요하다. 즉 의미적·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은 문이라도 화용론적으로 바르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작용이 화용론적 전제이다. 바꾸어 말하면 발화(Utterances)되는 상황에 적합한 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소위 화용론적 언어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赤」의 의미는 그것이 발화되는(쓰여지는)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즉 동일한 언어표현이라도 상황적 맥락이 달라지면 의미는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을 색채어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색채어 「赤」의 의미는 다기에 걸쳐있다. 國廣(1992)는 다기에 있어서 의미의 분기 방법의 뒷면에는 인간의 고도로 복잡한 인지능력과 유연하고 창조적인 비유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논하고 있다. 또한 그의 논을 빌리면 「赤」라는 단어가 가르키는 사물에 대한 심리적 파악 방법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지적 다의라는 것이다.

### 6.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川端康成의 『雪國』와 이것의 한국어 번역판에 나타난 색채표현의 대조를 통하여, 한·일 양 언어의 언어문화적 차이에 관해 실증적인 방법으로 고찰하였다. 색채어라는 상징성이 뛰어난 어휘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양국의 색채어를 이용한 색채표현의 특징을 인지적 측면에서 논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雪國』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赤」에 한정하여 고찰을 행하여 왔다.

그 결과 한·일 양 언어에 있어서 <Red>에 대한 언어표현의 발상 즉 인지적 측면에서의 상이점은 그다지 관찰되지 않았다. 물론 한정된 텍스트에 의한 분석이므로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한·일 양 언어에서 「빨강:赤」에 의한 색채표현이 예문 (1)(1')의 1차적 의미에서 (2)(2'), (3)(3'), (4)(4'), (5)(5'), (6)(6'), (7)(7') 에 이르기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이 색채어를 사용한 언어표현의 인지과정이 유사하다고 하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증거일 것이다.

물론 색채어를 이용한 비유표현을 통해서 양 언어의 표현상의 상이점도 엿볼 수 있었다. 일본어에서는 색채어만으로도 가능한 비유표현이 한국어에서는 색채어 뿐만 아니라 의미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어휘의 보완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한·일 양 언어의 표현상의 상이점이 보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래 한·일 양 언어에 있어서 대조언어학의 연구대상으로는 그다지 취급되어오지 않은 색채어를 대상으로 하여 양 언어의 표현법에 관해 언어문화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인정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금후에도 개별 색채어와 이에 의한 언어표현(색채표현)에 대해서 다각도의 분석이 요구되어 진다고 보여진다

## 【參考文獻】

- 리ーチ(1974) 『現代意味論』, 研究社
- 安井 稔(1978) 『言外の意味』, 研究社
- 毛利可信(1980) 『英語の語用論』, 大修館書店
- 國廣哲弥(1981) 「翻譯の言語學」『月刊言語』, Vol.10, No.12. pp.62-67
- 國廣哲弥(1982) 『意味論の方法』, 大修館書店. p.97
- 武井邦彦(1982) 「色彩語彙の歴史」『講座日本語學』4, 明治書院. pp.155-179
- 레이크(1987) 『認知意味論』, 紀伊國屋書店
- 레이크 & 타너(1989) 『詩と認知』, 紀伊國屋書店
- 鈴木孝夫(1990) 『日本語と外國語』, 岩波新書
- 國廣哲弥(1992) 「多義語の分析」『月刊言語』, Vol.21, No.7. pp.46-47
- 大山 正(1994) 『色彩心理學入門』, 中公新書
- 山梨正明(1995) 『認知文法論』, ひつじ書房
- 兒玉徳美(1998) 『言語理論と言語論』, くろしお出版 pp.83-115
- 吉村耕治(2000) 「色彩表現の特性と役割」『表現研究』73, 表現學會. p.30
- Wyler.S.(1992) *Colour and language : Colour Terms in English*. Tübingen : Gunter Narr Verlag Tübingen. p.154

## 要 旨

本論文では、川端康成『雪國』に使われている色彩表現と、これの韓国語翻譯版に現れている色彩表現との對照分析を通じ、韓・日兩言語の言語文化的な違いに關して實証的な方法で考察したものである。色彩語と

いう象徴性が高い語彙分野を對象とし、兩國の色彩語を用いた色彩表現の特徴を認知的側面から論じてきた。本論文では、とくに、『雪國』で使用頻度が高い「赤」に限って考察を行ってきた。

その結果、兩言語における<RED>に對する言語表現の發想、つまり認知的側面での相違点はそれほど觀察されなかった。もちろん、限られたテキストによる分析なので、例外が存在しないとは斷言できない。

しかし、色彩語を用いた比喩表現(メタファー的色彩表現)を通し、兩言語の表現上の相違点をも窺える。日本語では色彩語のみでも可能な比喩表現があるのに對し、韓國語では語彙の補完が必要である場合が見られる。このことから、韓・日兩言語における表現の相違点が窺えるのである。

キーワード：色彩・色彩語・色彩表現・比喩表現・メタファー的色彩表現・發想

투 고 : 2004. 2. 28  
1차 심사 : 2004. 3. 13  
2차 심사 : 2004. 4. 3

住 所 : 704-917 대구시 달서구 성당2동 632-3  
電 話 : 053-628-0183(휴대폰: 016-480-1018)  
E-mail : kwonys@kmu.ac.kr